



## 원형분만책(圓形分娩柵)

### - 홍 보 부 -

이탈리아, 화란, 뉴질랜드의 중돈센터에서는 원형의 분만책을 고안·사용하고 있다.

분만책을 원형(圓形)으로 한 이유는 어미돼지가 옆으로 누었을 때에 몸과 분만책이 접하는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다. 최대로 접하더라도 머리와 궁둥이의 두 부위만이 접하고, 나머지 부위는 접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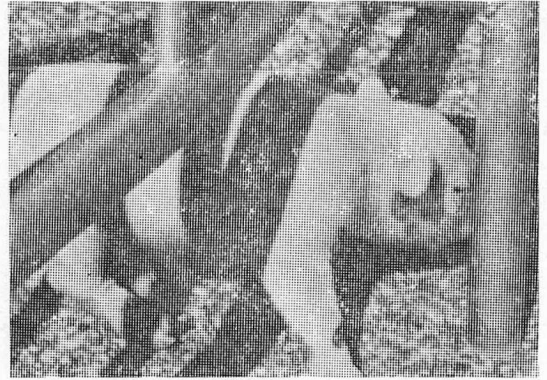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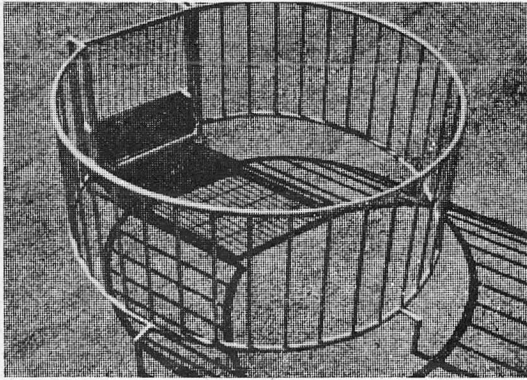
물론 어떠한 분만책이더라도 새끼돼지의 주요 사망 원인은 어미돼지에 의한 압사이다. 때때로 새끼돼지는 분만책의 보조각(補助脚)이나, 밑부분의 파이프와 어미돼지의 사이에 끼어서 압사한다. 더우기 많은 분만책의 디자인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제일 밑부분(最下位)의 파이프에 의해 유두의 일부, 때로는 유두의 한줄 전부가 상면과 접하게 되어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다. 그 때문에 새끼돼지에게 수유(授乳)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분만책은 어미돼지를 수용하는데에 충분한 고정(固定)이 필요하나, 상면에 접하여서는 안된다. 즉 분만책 밑부분 전체가 상면과 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만책의 밑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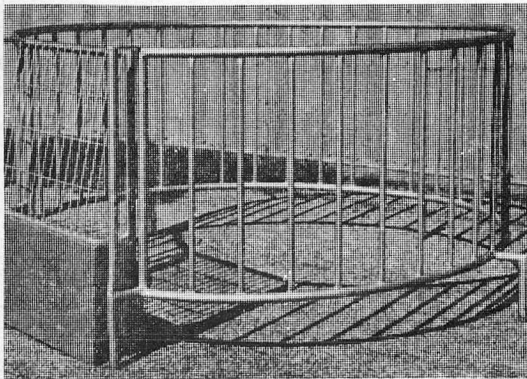
다섯곳에 다리를 붙여 밑부분이 상면과 뜨도록 하여 분만책에 의한 새끼돼지의 압사나 유두가 상면과 닿고, 분만책 밑부분에 의해 감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일 밑쪽에 파이프 높이를 조절할 필요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같은 일을 실행하기란 곤란하고 돼지를 기르는 양돈가나, 이에 관련된 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분만책을 상면과 뜨게 하는 연구를 거듭하여, 외국에서는 완전한 원형의 분만책을 상면에서 뜨게 효과를 내기 위해, 다섯개의 보조각(補助脚)을 분만책 제일 밑 파이프에 균등한 간격으로 붙인 분만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다리(補助脚)는 L자를 역으로 한 것으로, 분만책 제일 밑부분의 외부 돌레에(外角) 붙여 어미돼지가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분만책이 원형인 것은 모든 유두로 컷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어미돼지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누어 있어도 분만책이 유두로부터 먼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출입구나 먹이통의 위치에서도 같다. 따라서 새끼돼



▲ 분만책의 다리를 L자형으로 하여 새끼돼지가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한다.



▲ 어미돼지의 주위를 원형 분만책으로 쓴다 (이탈리아, 직경 2m, 높이 1m)

지가 언제라도 자유로이 젖을 먹을 수 있고 종전처럼 분만책의 제일 밑부분의 파이프 높이를 조절해 줄 필요가 없다.

● 원형 분만책의 효과

외국에서 시행한 원형 분만책에 대한 시험결과에서 보다 좋은 두가지의 이점이 명백히 나타났다. 그 하나는 분만책의 속에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어미돼지의 처치가 될 수 있는 점이고, 둘째로는 어미돼지의 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분만에서 이유까지 가두어 기를 필요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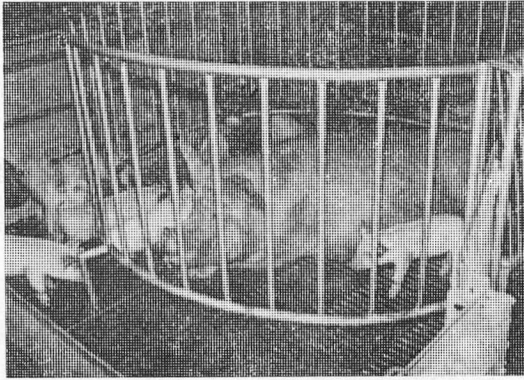
지고 이유성적도 개선된다. 임신중에는 군사(群飼)로, 분만과 수유기에 부자유스럽게 가두어지는 어미돼지는 번식성이 저하된다는 빅인터나쇼날의 기사에서 우리들은 원형 분만책의 사용으로 번식성이 개선되어질 것을 원하고 있다.

원형 분만책에 의한 효과를 수치화한 것을 보면, 그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으나, 보다 많은 분만을 원형 분만책으로 행하도록 하는 일이다. 초기의 시험예에서는 10두 분만에 10두 이유, 12두 분만에 11두 이유(30일)라는 성적이 있다.

만약 성적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증명되었어도 원형 분만책이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의 설계에서는 직경 2m이하, 상면에서 높이는 1m이고, 상면과 제일 밑부분의 파이프와의 사이는 18cm로 새끼돼지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고 있다.

전술한 이탈리아의 분만책은 새로운 디자인이기는 하나, 원형 분만책의 고안은 비교적 오랜전 것이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분만책으로 루아그과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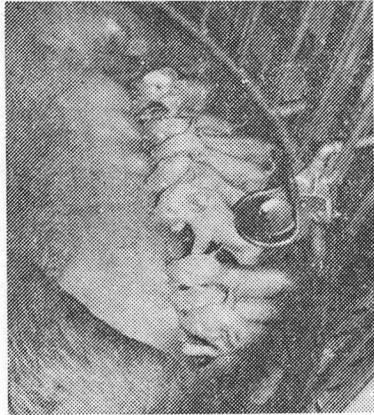
분만방의 외벽에는 방어레-루가 붙어 있고, 중심에는 원형의 새끼돼지 침상이 설치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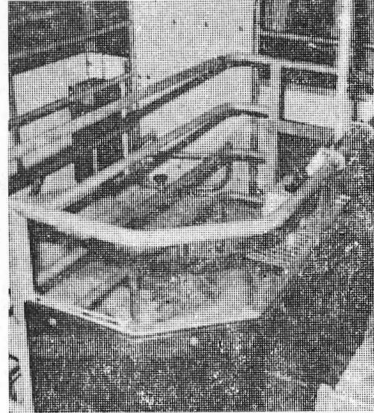
▲ 종래의 분만책과는 달리 어미돼지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 루아그라형 분만책



▼ 분만책에 원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미돼지도 누어 있어도 아무 불편 없이 가릴 수 없다



▼ 웰미링사의 분만책 · 중유기 새끼돼지의 친근성

다. 어미돼지는 레-루추에 등을 돌려 옆으로 눕게 되므로 유방은 새끼돼지의 침상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경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어미돼지가 새끼돼지에 등을 향해 옆으로 눕는 일을 막고 있다.

최근의 예로서는 화란의 한 회사가 전시한 분

만책이라고 한다. 이 분만책은 중심에 섬을 만들고, 어미돼지의 침상과 배설장소를 분리시키고 있다.

두가지 형과 비교하면 이탈리아의 예는 어미돼지를 원 안에, 자돈을 원 밖에 둔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